

이제 우리는 로마서 4장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3:21절의 말씀에 대한 추가해설(追加解說)입니다.

“이제는 / 율법 외에 / 하나님의 한 의(義)가 나타났으니 /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이 말씀에서 바울은,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서 얻는 의와, 믿음으로 얻는 의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을 이신득의(以信得義)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말 짚은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씨이(以), 믿을 신(信)**, 즉 이신=믿음으로써, 얻을 득(得), 옳을 의(義) 득의=의를 얻는다는 입니다. 영어론 Justification by Faith 라고 합니다. 이게 기독교의 핵심용어(核心用語)입니다.

* **의를 얻는 두 가지 방법**을 이야기한 셈입니다. 하나는 율법준수를 통해서입니다.

그러나 3장까지의 바울의 논지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놓은 해결책은, 하나님이 내놓은 패는, 율법외의 방법으로 얻는 하나님의 의였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믿음의 법**이라고 했고, 율법에 대비해 그것을 **믿을 신(信), 신법**이라고 했습니다. 이 법은 율법(律法)과는 달리, 실현(實現)가능(可能)한 법입니다. 이 믿음의 법은, 비록 율법밖에, 율법과 상관없이 나온 것이기는 하지만, 더 깊이 들어가보면 사실, 이것은,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證據)**, 지지(支持)를 받은 것이라고, 3:21절에서 설명하였던 것입니다.

율법과 어떤 선지자가 이 믿음의 법을 지지한 것일까요? 질문해야 하겠습니다. 율법은 성막과 제사제도로 설명이 됩니다. 그런데 선지자는 어떠한가요. 어떤 선지자가 지지한 것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대표적인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구일까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성경에서 불리는 **아브라함**과, 시편의 절반을 기록한 **다윗**입니다. 이 두 사람을 하나씩 살펴봅시다.

I. 왜, 아브라함과 다윗일까요?

1. 바울은 왜 아브라함을 가져 왔을 까요?

로마서 4:12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로마서 4:16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이 말은 아브라함이 할례자의 조상일 뿐 아니라 <믿음의 조상> 이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예수민는 사람을 다 포함하는 말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아브라함은 국조(國祖)와 같은 존재입니다. 한국 사람에겐, 마치 시조(始祖)단군(檀君)과 같은 존재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중, 누가복음 16장에 등장하는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에서,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것으로 묘사됩니다. 16:29절에서 아브라함은 자기를 다시 세상에 보내 식구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게 해달라고 하자,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라는 말까지 하는 것으로 등장합니다. AB가 대단한 위치에 있는 것으로 묘사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53에 보면, 유대인과 예수님의 대화가 나오는 데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이 질문에서 우리는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생각하는 지를 알게 됩니다. 아브라함을 가져올만 하죠. 유대인들이 최고로 존경하는 분이니까?

2. 바울은 왜 다윗을 가져 왔을 까요?

다윗은 역사상 위대한 왕(王)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국기에 있는 별이 **다윗의 별**입니다. 예수님도 다윗의 후예(後裔)이시고, 구약성경 시편(詩篇)의 절반을 기록한 사람도 다윗입니다. 다윗은 성군으로 기록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는 이스라엘나라의 기반을 이룬 사람입니다. 그는 나라의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정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 매우 특별한 언급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9-32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先知者)라**, 하나님께서 이미 맹세하시,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에 증인이로다 (행 2:29-32) 이 말은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는 다윗을 선지자라고 하였습니다.

이건 특별한 말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베드로는 다윗이 지은 시편 32편을 인용합니다. 그는 그 시편 32편은 자신에 대해 말한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것은 미리보고 말한 것이라고 합니다. 선지자 **foreseer**라는 말입니다. 무엇을 보았느냐면 메시아의 고난과 부활을 보았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선지자되기에 넉넉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말했다고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2:36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베드로도 말합니다. 사도행전 1:16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기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령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그는 또한 사도행전 4:25절에서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라고 하면서 시편2편을 인용합니다.

자 중간정리를 해봅시다. 지금 바울은, 하나님이 율법외에 주신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율법외에 주어진 것이지만, 율법과 선지자의 지지를 받는 다고 했습니다. 그 선지자의 대표로 아브라함과 다윗을 말하고 있습니다. 과연 아브라함과 다윗은 어떻게 의롭다하심을 받았을까요? 이것이 알면 우리는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데 도움이 됩니다.

II. 아브라함과 다윗은 이신득의에 대해서 어떤 경험이 있습니까?

1. 먼저 아브라함을 살펴봅시다.

오늘의 말씀 중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는 1-3절입니다.

1.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2.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써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3. 성령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매**,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이 구절은 아브라함을 조명(照明)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육신으로 유대인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느냐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아브라함이 행위로써 의롭다하심을 얻을 게 없었다고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랑할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다른말로 하면 <아브라함은 의롭지 않았다>는 것이며, 다시 다른 말로는, <그는 구원받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의 이야기, 창세기 12장에서 25:10절까지 총 14장에 등장하는 그의 일대기를 읽어보면, 아브라함의 행동이, 완전한 의(義)에 이르렀다고 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부라함의 생애에는 어두운 면과 밝은 면이 동시에 존재하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역사적인 사건을 바울은 끄집어 냅니다. 3절입니다.

3.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매,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이 사건은 창세기 15장의 가나안에 온지 10년되었을 때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무엇을 어떻게 말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생각, 내 주변에서 뭐라고 말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15장이 배경입니다.

창세기 15장의 배경은, 아브람이 사로잡혀간 조카 롯을 위해, 그돌라오멜 연합군을 격파하고 돌아온 후(창14:5) 나타나신 하나님과의 대화 가운데서 나온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대화하다가 의롭다하심을 받았습니다. 이 점이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했기에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브람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너의 방패요 큰 상급이라”고 말씀하십니다.(15:1) 그러자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의역하면 이렇습니다 “상급요? 상급을 주시려면 아들이나 주십시오, 나는 무지하기요, 내 상속자는 이 다메섹사람 엘리에셀이 되게 생겼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끌어 밖으로 나가게 해서 “하늘을 보고 별들을 셀 수 있느냐”고 물으십니다. 당연히 셀수 없죠. BC 2000년, 지금으로부터 4천년전의 밤하늘이라면 더더욱 그랬을 것이 아닌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가 중요합니다. 이 말씀에 대한 아브람의 반응이 중요합니다. 지금 아들 하나없는 상황에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고 기록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평가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두 가지 면이 있습니다.

1.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 하나님이 보여주신 미래를 믿는 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지금은 비록 아들하나 없는 몸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많은 질문이 있었을 것입니다. 저 셀 수 없는 별들처럼 자손이 많아진다고? 내 후손을 통해 천하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약속을 십년이나 기다렸지만, 자식하나 못 얻었는데, 무슨 황당하신 말씀?. 등등 속으로 의심할 수 있었을 겹니다. 그러나, 본문은 아브라함이 믿었다고 합니다. 어찌면 그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그의 말씀에 대해 완전한 신뢰를 보낸 것입니다. 그것이 그의 의(義)였습니다.

2. 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그는 놀라운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이를 그의 의(義)로 여기시고**”라는 말씀입니다.

“**아브람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義)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 낸 여호와니라.” (창15:6-7)

*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의(義)**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여기서의 의는 righteousness입니다. 말 그대로 의입니다. 창15:6절의 단어 의(義)는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그 의(義)입니다. 원어론, tsedaqah(첸다과): justice, righteous act, 이 단어가 500년 후 모세의 신명기에도 그대로 사용됩니다.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신명기 6:25)

같은 단어가 신명기 9:4-6절에는 공의(公義)라는 말로 나옵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속하신 것은 너희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가나안 사람들이 불의해서라고 하는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창세기15:6절을 NIV Bible로 읽으면 재미있습니다: “Abram believed the LORD, and he credited it to him as righteousness.” **하나님이 믿는 것을 의롭다고 하는 크레딧으로 주었다고합니다.**

* 우리는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언제 의롭다함을 얻었는가?>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 나이 85세때였지요. 그것이 창세기15:6절에기록돼 있어요>, 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의롭다함을 얻었는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고, 말씀하시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자식을 주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의롭게 되었습니다(미래).

* 우리는 입장이 다릅니다. 성격은 같지만, 믿음의 내용은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과거) 의롭다하심을 얻습니다. 아들문제는 같지만 그 내용이 다릅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믿음을 가집니다. 우리는 <아들을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신다>는(요1:12)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의심 없이 그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을 의롭게 해주심과 같은 성격의 구원입니다.

2. 이젠 다윗을 생각해 봅시다.

4-8절이 다윗의 경우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잘못 생각합니다. 율법만 보면, 인간의 선행이 구원의 조건이 된다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동양의 모든 종교철학(宗教哲學)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불교(佛敎)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행구원론(善行救援論)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그 생각이 충만합니다.

<구원의 확신>을 물어보면 대개 확신이 없습니다. 행위구원론이 머릿속에 꼭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서 그래요. 내가 오늘 밤에 죽었을 때 구원받겠다는 확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5절을 보세요. 하나님을 어떻게 말하는 지를 보세요

<일을 아니할지라도 정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 이 분이 누구인가요? 우리 하나님입니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福)>** 이라는 말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다윗은 선지자입니다. 그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깊었습니다.

그는 일, 즉 행위에 의하지 않고, 믿음에 의해 의롭다함을 얻는 길을 이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어떻게 이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까요?

오늘본문에서 바울사도가 인용한 것은 다윗의 시편 32:1-2절입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행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행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다윗은 용서받은 자의 기쁨을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죄를 덮어주시는 것이요 또한 의를 회복시켜주는 것임을 다윗은 알았습니다. 다윗은 이것을 회개를 통해서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대로, 다윗은 자기의 장수인 우리야를 죽이고, 그의 아내를 취함으로, 살인과 간음을 동시에 범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나단선지자를 보내어 그를 책망하십니다.

삼하 12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나단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다윗은 나단에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기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비록, 그는 그 일로 대가를 치렀으나 그 일을 통해 참사람이 되고 하나님을 이해합니다.

시편32편은 그의 여러 참회시 중 하나입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하므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아로 나를 누르시으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 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이르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즉, 다윗은 이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습니다. 그리하여 “4. 일하는 자에게는, 그 값이 은혜(恩惠)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報酬)로 여겨지거니와, 5.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는 진리를, 깨닫고 알게 된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한 것입니다.

평생을 죄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인간들이 뼈속깊이 깨닫고 감사하고 기뻐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다른 것이 아닌 이 은혜(恩惠)의 복음(福音)입니다. 아무리 살펴봐도, 내가 망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나의 부족함으로 인해 당한 고난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를 살려주신 것을 통해 우린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부족함을 통해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봅니다. 다윗은 시편 32편의 마지막 구절을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이다.” 라는 말로 마감합니다.(11)

전체적으로 정리해보자면 이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다윗도 의로 여기심을 받은 것이지 스스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둘 다 일한 것이 없이 의롭다 함을 받은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일한 것이 없이, 단지 하나님과의 대화속에서, 그 분의 약속을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았습니다. 다윗도 일한 것이 없이, 아니 오히려 악을 행하는 중에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 다시 의롭다 하심을 받는 행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원받은 자들은 이 복을 누리야 합니다.

3. 이신득의의 행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6, 7, 8 절에 세 번의 복이 언급됩니다. 복,복,복입니다.

6.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福)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7.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福)이 있고

8.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福)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행복(幸福)은 누려야 행복(幸福)입니다. 복음서가 ‘주를 알 때 행복있네’입니다.

“1절: 구주를 알때 행복있네. 그 사랑 안에 거하므로 내 맘이 참 변화 얻었네. 주는 나의 행복

2절: 거듭난 생활 행복있네 구주와 나는 하나되어 구원의 사랑을 얻었네 주는 나의 행복.

<오 내 기쁨 눈물이 두렵잖네. 보배되신 주 내 맘에 계시네.

3절: 용서받을 때 행복있네 값있는 삶을 살게 한후 하늘나라로 인도하네 주는 나의 행복,
주는 나의 행복 주는 나의 행복.

값없이, 그러나,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그 대가를 치르신 것을 진정 인정한다면, 거기에서 우리의 행위를 제거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래야 자유하며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게 해주시기 위해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고 주님을 마음에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죄 사함과 하나님의 의를 입혀주십니다.

그리고 아들과 딸로 만들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들어가게 해주십니다.

아브라함도 다윗도 바울도 신약시대의 모든 성도들도 그리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도 다 이 이신득의의 신앙으로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믿는 것을 하나님은 의롭다 하신다.

의롭다하심은 다종의 의미가 있다.

1) 인정해주신다는 것이다. 2) 관계의 정상화를 의미한다. 3) 죄를 사해주신다는 것이다.

이 사실을 믿는 축복, 행복을 누리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우리들, 이 이신득의의 신앙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들을 통해 주신 이 하나님의 의를 믿습니다.

이 이신득의의 복음을 자랑하게 하시고, 누리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돈이 행복이 아닙니다. 명예가 행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는 것이 행복입니다. 의롭다함을 입은 것이 행복입니다.

우리에게 의로운 생각과 가슴으로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기반을 허락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죄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나오는 것을 인해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혼의 참담함을 한 꺼풀씩 벗기면 벗길수록, 하나님의 의가 나오는 것을 인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